비혈연 골수이식에 관한 뉴스레터

통권 5호
발행일 : 1998.12.15

골수이식의 지난날을 돌아보며…

여의도성모병원 카톨릭조혈모세포이식센터
골수이식 코디네이터 김 광 성

국내에서 골수이식을 실시하게 된 것은 어언 16년이 되어갑니다. 명동성모병원 시절, 내과 병동의 귀퉁이 독방에 칸막이를 치고 조그마한 에어컨을 설치한 후 목욕탕 욕조에 판자를 깔아 간호사 작업대를 만들어 우리나라 최초의 동종골수이식을 성공시키고는 모든 신문의 톱 기사를 장식하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 후 그 환자는 외항 선원에서 농부로 탈바꿈 하여 봄이면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손수 지은 농사라며 딸기를 한 상자씩 가지고 서울에 올라오곤 했습니다. 이제 골수이식은 1,000여 사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자그마한 규모로 이루어지던 골수이식은 이제는 다양한 조혈모세포 이식원을 이용하여 딜럭스한 시설의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질 만큼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과 바쁜 일상 속에서 눈발이 간혹 날리는 초겨울이면 누군가가 책 머리글에 우리에게 늘 스승이었던 우리 환자들의 영령 앞에 바친다고 했던 가슴을 저리게 했던 글귀와 함께 우리는 가슴속에 남아있는 내가 좋아했고 많은 말들을 나누었던 환자와 그 가족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나의 추억 속에서 흐릿한 날씨와 따뜻한 커피를 대하게 되면 생각나는 아름다운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렵게 독학으로 공부했던 입지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로 고생하던 중 교회 목사님과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골수이식을 하게 되었는데 골수가 일치하는 공여자가 시집간 언니였는데 처음부터 공여자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골수 공여를 반대하였으나 어찌 어찌하여 골수를 이식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생착이 잘 안되어 결국은 우리 곁을 떠나게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질병의 마지막 순간 까지 인간의 의지와 꿋꿋함, 초연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Hb(헤모글로빈)3 정도의 몸으로 눈이 오는 해인사 한 자락에서 우리 간호사들이 농담 삼아 내게 하던 호칭으로 "'대장' 퇴원 후 처음 외래 방문 때 타 주었던 커피향이 생각 나네요. 여기는 눈으로 온통 덮여있습니다…" 라며 편지를 띄웠던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런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퇴원 후에 방문하는 환자가 있으면 나는 간혹 내가 제일 먼저 커피를 만들어 주는 사람

이 되기를 자청합니다. 이것은 저에게는 환자에게 골수이식시 제한된 생활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도록 하는 축하 입문식의 의의를 제 나름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여러 추억 속에 환자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새로운 환자를 맞이합니다. 그들은 과거처럼 단순히 한번 해 보는 치료나 동종 골수이식만을 위한 환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새로운 치료와 완치를 찾아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덕 바우만과 같이 질병에 빠진 것을 이겨내고 형제간에 골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건강을 얻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지닌 사람들인 것입니다.

형제간에 맞는 골수를 찾지 못할 경우 이들은 자기와 똑 같은 이제까지 몰랐던 쌍둥이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의 순간도 잠시 천신만고 끝에 만난 쌍둥이는 만나기도 전에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세계화 새대입니다. 국내에서 일치자를 찾지 못할 경우 가까운 일본, 국제적인 기관에까지 조상의 원류를 찾아 골수를 찾아올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채취한 골수는 바로 비행기로 공수해 오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 4,000만이 넘는 나라에서 골수를 주겠다고 지원한 사람이 26,000여명이라니!!!

어렵고 삭막한 세상에 따뜻한 마음과 몸 속 깊이 있는 따뜻한 골수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가진 것 하나 없어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만나고 싶었습니다.

- 꽃동네 오웅진 신부

꽃동네의 촌장 오웅진 신부, 그가 올해 막사이사이상 공공봉사부문의 수상자로 결정 되었다. 20년 세월 동안 오로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노고가 인정받은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긴 시간도 모자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죽는 것이 소원” 이라고 말한다. 함께할 줄 모르는, 마음이 가난한 이들에 비하면 그는 나누는 기쁨을 아는 진정 복받은 사람이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산1-45번지, 꽃동네로 오른쪽 언덕 초입에 자리한 돌비에 새겨진 문구이다. 잊혀지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보금자리 꽃동네를 일궈온 오웅진 신부(53)의 사랑과 봉사정신을 담은 말이기도 하다. 76년 사제서품을 받고 충북 음성군 무극성당에 첫 부임한 오웅진 신부가 성당 옆에 지은 시멘트 벽돌집에 18명의 부랑인, 정신질환자, 무의탁 노인이 모여 살면서 출발한 꽃동네는 이제 각종 시설을 갖춘 어였한 사회복지센터로 성장했다. 현재 꽃동네의 각 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음성의 제1꽃동네와 89년에 설립된 가평 제2꽃동네를 합쳐 모두 3,000여명, 꽃동네가 이 많은 사람들을 감싸안기까지는 오 신부의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정

신, 그리고 저돌적인 추진력이 큰 힘이 되었다. 그의 이런 '온몸을 바쳐 불쌍한 이들을 돌본 사랑의 정신' 을 높이 산 막사이사이상 사무국은 그를 96년 막사이사이상 공공봉사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

비범한 걸인 최동규 할아버지와의 운명적 만남

"신부로서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것일뿐, 사제의 신분으로서 상을 받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72만 꽃동네 후원회원과 국민의 성원에 주어지는 상이라는 생각에 수상을 허락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오 신부는 이상을 '더 많은 희생과 봉사를 하라는 격려와 요구'로 받아들인다. 막사이사이상은 필린핀의 라몬 막사이사이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사회지도, 정부봉사, 공공봉사, 국제이해, 언론 및 문학의 5개 부문에 걸쳐 시상되며,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울 만큼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수상자는 1962년의 장준하 씨 이후 오 신부가 12번째.

우웅진 신부가 꽃동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최규동 할아버지와의 소중한 만남이었다. 어느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걸인 할아버지를 뒤쫓아간 오 신부는 충격적인 모습을 접하게 된다. "최동규 할아버지는 성치않은 몸으로 다른 걸인들에게 밥을 얻어다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새 잠을 못이루고 뒤척이다가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 이라는 깨달음을 얻게되었고, 다음날 바로 주머니를 턴돈 1300원으로 시멘트를 사고 벽돌을 찍는 기계를 빌려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만은 않았다. 동네 유지들의 반대와 설들의 노력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마침내 1976년 11월 15일 , 방 5칸 부엌 5칸 짜리 시멘트 벽돌집이 완공되자 18명의 걸인들이 이 집으로 입주하였고, '사랑의 집' 이라는 이름 아래 꽃동네가 문을 열었다. 하지만 최동규 할아버지와의 만남, 그리고 꽃동네의 시작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오 신부의 삶의 철학을 결정지은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그런 삶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취하게 한 계기였을 뿐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겠다는 오 신부의 인생관은 비교적 어린나이에 형성 되었다. "어릴적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일이었습니다.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그날도 배가 고파 개울에 내려가 정신없이 물배를 채우고 있는데, 둑방 위에서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올라가보니 피난길의 폭격으로 한 쪽 다리를 잃은 아버지와 그의 딸이 새우 한마리를 가지고 서로 양보하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우리 민족의 현실에 대한 분노와 오기가 생겨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부녀와의 만남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이후 어린 오웅진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 정치가의 꿈을 키웠다. 그러나 집안 형편으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혼자 공부하면서 사귄 펜팔 친구 김주열의 죽음(1960년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김주열의 주검은 4.19의 도화선이 되었다)은 정치에 대한 회의를 안겨주었고, 그는 결국 정치가의 꿈을 버렸다.

"이 생명 다한 뒤 내 육신도 꽃동네를 위해…"

오웅진 신부가 사제의 길을 걷기로 다짐한 것은 1963년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수년간 선행을 베푼 공로로 상을 받은 오기선 신부를 접하고 나서 부터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겠다는 뜻을 간직한 이 소년은 '신부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돕기가 더 쉬울 것' 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69년 광주대건신학교에 입학, 76년 마침내 사제서품을 받았다.

오 신부의 소망은 소박하지만 크다. 그건 바로 꽃동네 식구들같이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해 죽는 것이다. "저는 날마다 5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의지할 곳도 희망도 없는 사람들, 꽃동네 가족, 꽃동네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 꽃동네 회원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국민과 전인류를 위해서 말이지요. 제 소망은 이들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저는 죽으면 앞 못보는 사람을 위해 안구를 기증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시신도 기증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심장만은 꽃동네 가족묘지에 묻히고 싶습니다. 그것을 제 사랑의 표적으로 보고 한 사람이라도 더 꽃동네 회원으로 인도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http://www.samsung.co.kr/magazine/hss/Sep96/ki14.html

[수혜자이야기]

다시 얻은 삶

글 오 혜 경

1997년. 고3 이었던 나는 대개의 수험생이 그러하듯 한시도 쉴틈이 없었다. 6월 2일에 열리는 학교 예술제와 얼마 남지 않은 대학입시는 잠시의 정신적 여유마저 허락되지 않았다. 학교가 멀어 5시 30분에 학교버스를 타고 화곡동에 있는 학교에 등교하고 수업과 실기레슨이 끝나고 과외레슨을 받기 위해 목동으로 가야 했다. 밤 12시에 레슨을 마치고 아빠와 함께 집에 돌아오면 새벽 1시가 넘던 날들이었다.

그런 바쁜 일상의 반복 속에 어느 순간 내 몸은 변화를 갖기 시작했다. 배에 큰 종기가 생겨 담임선생님이 짜주셨는데 예술제 연습 중 친구의 팔꿈치가 몸에 부딪친 후 다음 날 보니 커다란 피멍이 들어 있는 것이었다. 또 잇몸이 전체적으로 부어있어 이를 가릴 정도였고 건드리기만 해도 피가 났다. 안색은 점점 창백해지고 조금만 뛰어도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다. 몸은 쏟아지는 졸음과 무력감으로 주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치과에 갔더니 의사선생님께서 그냥 큰 병원에 가라고만 말씀하셨다. 치과로부터 전화를 받으신 엄마는 병원에 가자고 하셨지만 예술제로 바쁘던 나는 도무지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다. 예술제가 끝나고 나는 담임선생님께서 예전에 수간호사로 계셨던 서울중앙병원의 이규형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곧장 응급실에 입원을 했다.

갑자기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학교도 가야했고 수능시험과 실기시험, 이 모든 것이 걱정될 뿐이었다. 다음날부터 이어지는 피검사와 골수검사…, 내게는 너무도 힘겨웠다. 항암제 치료를 받으며 나는 내 긴 머리카락을 잘라 내야 했다. 겉으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받아들

였지만 나는 몹시 괴로웠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병명조차 생소한 이 병이 어떤 것이기에 나를 괴롭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기만 했다. 계속되는 수혈(혈소판)과 부작용이 나를 괴롭혔다. 무엇보다도 내 곁에 있던 가족의 소중함이 절실히 느껴지던 때였다. 1차 치료가 다행히 관해가 되고 골수이식을 위한 가족간 검사를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가족중에는 나와 골수가 맞는 사람이 없었다. 아빠와 언니, 동생은 모두 일치했지만 나만 달랐다. 부모님 또한 몹시 괴로와 하셨다. 나는 그분들을 위로해드렸다.

그 후 우리 가족은 골수협회에 신청을 해 놓고 다시 2차, 3차 다지기까지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명의 일치자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다. 우리 가족은 간신히 희망의 줄을 붙잡은 듯 기뻐했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으로부터 이식을 거절 당하자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져가고 있었다. 수소문 끝에 간신히 찾은 남은 한 명, 그 사람은 내게 곧 생명이나 다름없었다. 그 사람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수술 날짜가 정해졌다. 남자였다. 나는 10월초에 입원하기로 하고 퇴원을 했다. 집에 있는 동안 나는 골수이식에 필요한 물건을 준비한 후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드디어 입원날이 왔다. 무균실에 입원을 했다. 나만 남겨두고 나가시는 엄마를 붙잡고만 싶었다. 잠시 후 씨라인(중심정맥혈관)을 뚫을 때 엄마를 잠시 보았을 뿐 나혼자만의 외로움이 시작됐다. 아침 청소 때문에 잠시 들어오시는 엄마를 날마다 기다리게 되었다. 약으로 치료를 일주일 하고, 항암제는 3일 투여했다. 내몸의 세포를 모두 죽인 것이다.

드디어 이식하는 날이 됐다. 골수가 늦게 도착해 모두들 초조해 했고, 10시가 넘어 도착해 내 몸에 한 방울, 한 방울, 새 생명이 되어 떨어졌다. 며칠후 나의 수치는 모두 0으로 되었고, 힘겨운 무균실 생활에 모습이 달라지고, 몸에 변화도 나타나기 시작됐다. 몸이 점점 부어 체중은 70kg에 이르고 소변을 제대로 누지 못해 배가 부어 올랐다. 아무런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이 무엇보다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짙은 외로움이었다.

오직 나 혼자였던 것이다. 가족이 너무도 보고 싶어 눈물이 났다.

안 기억을 상실해 날짜를 알 수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몰랐다. 수많은 혈소판을 맞으며 수치가 오르길 기다렸지만 쉽지 않았다.

그러던 11월초 나는 성공적으로 무균실에서 나왔다. 내 몸은 시커멓게 타 있었다. 내 자신조차도 나를 인정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수능시험 날짜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시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보겠다는 생각에 경 병원측과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앰뷸런스를 타고 시험장으로 갔다. 새벽에 미리 혈소판 두개를 맞았다. 양호실에서 시험을 보고 나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 깨부터 몸에는 숙주반응이 나타났다. 몸에 무언가가 생겨 가려움이 시작됐고 이어 장에 염증이 생겨 계속되는 성사와 복통에 시달릴 것이다. 하루하루 진통제를 맞으며 생활해야 했다. 그래서 염증이 나을 때 까지 금식을 하고 영양제를 맞으며 생명의 끈을 이어 나갔다.

그렇게 몇 달을 고생한 끝에 이듬해 3월 27일 나는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퇴원을 하게 되었다. 실기 시험까지 마치고 대학엔 입학했지만 휴학계를 낸 상태였다. 퇴원을 하고

다시 맞이한 세상은 마냥 새롭기만 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번, 이제는 이주일에 한번씩 병원에 다니고 있다. 숙주반응으로 잠시 입원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아주 건강한 상태다.

내년에는 학교에 복학을 하게 된다.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40kg 밖에 나가지 않는 내 체중을 걱정하지만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듯하다. 물론 예전보다 체력은 약해졌지만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커다란 축복에 가슴이 떨릴 뿐이다.

언제나 내 곁에서 나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을 우리 가족과 이규형션생님, 친절한 간호사 언니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구 분, 내게 골수를 기증해 주신 그 분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시 맞이할 수 있었을까. 막연히 그 분의 얼굴을 그려 보며 나를 도와주신 이 모든 분들께 더욱 열심히 내 삶을 살아가겠다고 마음속 다짐을 해 본다.

부디 지금도 투병의 긴 시간 속에 고통받는 환우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축복된 세상속에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간절히 기도한다.

어느 이름 모를 천사에게

골수기증 받은 아기의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골수를 기증 받은 아이의 엄마입니다. 평범하지만 화목하게 살던 우리 가정에 98년이란 해는 고통과 행복과 감사를 한꺼번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땐,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얼마나 울고 또 울고…. 마치 희망이 없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골수은행을 통해서 우리 아이와 똑 같은 골수를 가진 사람이 우리 나라에도 있으며, 기꺼이 골수를 기증해 줄 의사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또 한번 감사의 눈물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골수를 기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텐데, 어떤 사람일까? 용기있고 굳은 신념의 소유자일까? 아니, 신앙심이 충만한 사람일까? 우리 아이가 골수 검사를 하는 날이면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이름 모를 천사님! 당신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아이는 이제 건강을 되찾아 가고 있답니다. 항암이나 방사선 그리고 무균실에서 보내던 한달 동안의 과정을 무사히 잘 마치고 이제 일반 병실로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기도할 때 우리 아이를 위한 기도보다 당신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진정입니다. 당신이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며, 단신의 평생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저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당신을 만나 손이라도 부여잡고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이라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으나, 그렇게 허락되지 않군요.

다만, 당신의 용기 있는 결단이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 이었음을 꼭 전하고 싶

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아이와 같이 골수를 기증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골수은행이라는 곳이 있어서 서로의 골수를 기증 받게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신의 평생에 큰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두서없이 쓴 서신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당신의 골수를 이식 받은 아이의 엄마가-

아름다운 청년들

백혈병어린이후원회 사업과장 글 김진숙

매주 토요일이면 후원회 사무실은 건장한 청년들로 꽉 찬다. 좁은 사무실에 그들이 들어서면 언제나 든든하기 그지없다. 웃고 떠들고 왁자지껄한 그들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사무실은 생기로 가득찬다. 올 때마다 하는 일은 지방에서 거주하며 서울에서 치료받는 환아들의 숙소를 청소하거나 후원회원들에게 보내는 회보 봉투 붙이는 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일 하러 매주 후원회를 찾아 다니느냐고 핀잔도 할 만한데,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이 일도 아픈 아이들을 위해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안하면 할 사람도 없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그들 중 2명은 지난날 그 어려운 암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청년들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도 부모들을 울리고, 절망하게 하는 바로 그 질병, 암. 과친구들에게 자원봉사를 하도록 권유하여 팀을 이루어 같이 활동하고 있는 22살의 한 청년은 6년전 횡문근육종을 진단받고 치료를 끝냈다. 말수는 적지만 책임감과 리더쉽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21살의 다른 한 청년은 사교적이고 어머니를 대신해 가락동 시장에서 장도 봐 줄 정도로 다정다감하고 풋풋하다. 그는 5살에 급성림프구성백혈병에 걸려 3년간의 치료를 받고, 3년후 재발하여 다시 치료를 받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 둘의 공통점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극진하다는 것과 참 열심히 생활한다는 것. 아마도 자신들을 위해 어머니가 애쓰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다시 찾은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과의 인연은 소아암 캠프로부터 시작되었다. 캠프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부모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심리사회적인 의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다른 질병의 캠프에서 아이디어를 빌렸는데, 그것이 바로 같은 질병을 가졌거나 같은 병력을 가진 젊은이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일단 완치된 젊은이들 중 병력을 밝히고 같이 활동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도 많았고, 캠프에 참석하면서도 치료해준 병원의 선생님들이 부탁하니까 거절하기 어려워서 마지못해 참석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 두 명의 청년은 환아들에게 있어 자신들이 가지는 완치자로서의 의미를 설명듣고 난 후로는 캠프에 흔쾌히 참여하여, 과거의 자신과 닮은 경험을 하는 어린

이들과 그 가족에게 무척이나 즐거운 시간을 제공하였다. 그 하나만으로도 부모들은 그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나아서 이 다음의 캠프에 이들처럼 자원봉사자로 나설 수 있기를 바라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또한, 치료만 끝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환아의 부모들에게 치료가 종결된 후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또 다른 문제들, 예컨대 학교문제나 또래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많은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이들처럼 어릴적 암과 싸워 이겨낸 사람들이 지금도 암과 싸우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줄 기회가 많았으면 한다. 예전에 암 환자였다는 것이, 그 어려운 투병과 정을 끝냈다는 것이 무언가 사회적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숨기거나, 잊고 싶어한다. 직접 병과 싸웠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부모들이 '백혈병' 혹은 '암' 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떨린다며 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을 말리는 경우도 흔하다.

사실, 후원회나 기타 다른 사회적 기관들의 사업이 주관적 감정을 배제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사회복지적 접근이라면, 직접 체험한 바 있는 이들의 존재와 함께 하는 시간은 어린이들과 부모들에게 다소 주관적이고 비체계적이겠지만 동병상련의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무한한 위로가 될 수 있다. 지금도 병실에서 집에서 가슴 한구석에 상처를 갖고 생활하는 부모들에게는 커다란 희망이 되고 있다.

소아암은 불치병도 아니고, 사회의 동정을 받아야 하는것도 아니다. 의사들만이 의학발전의 척도로 관심을 가질 질병도 아니다. 오히려 소아암은 나을 수 있는 난치병이며, 특정한 사람만이 걸리는 병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은 저절로 이루어 지지는 않는다. 후원회의 아름다운 청년들이 치료받던 그때 보다 더 발전된 의학과 조금이나마 더 나아진 사회적 여건 속에서 전국 각지에 암에서 이겨낸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된다. 소아암을 극복한 사람들은 커다란 승리자이다. 완치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사회의 인식을 더욱 개선시킬 수 있는 굳건한 토대가 된다. 승리자로서 이러한 아름다운 청년들이 오늘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환아들의 앞에 더 많은 모습을 나타내 주기를 바란다.

[기증자이야기]

처음 골수 이식이란 말을 들었을 때

글 이 은 구

(기증자 안창우씨의 친구)

골수이식수술이란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친구에게 던진 첫마디는 "부모님 아시냐?" 였다.

“잘한 일이다”라거나 “보람 있겠다”라는 말보다 걱정되는 말이 먼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걸 보면 골수이식이란 말이 아직은 우리사회에 적응된 단어는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 것을 부정한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던 내가 멍청해 보인다. 살아오면서 주위의 어른들이나 잘못된 언론들로부터 잘못된 부분만을 들었고 누가 누구에게 기증을 했다는 이야기는 당연하다는 것처럼 여겨져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누가 기증했다고 하면 모두들 ‘그 정도쯤이야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만 하지 실제로 하라면 누구나 기피를 해버린다. 나 또한 그러했다. 그러나 얼마전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갔다. 아까까지도 멀쩡해 있던 친구가 갑자기 병원이라며 전화가 와서 놀랐다. 전후 사정을 듣고 나서야 나는 골수 이식에 대해서 새로운 느낌을 받았다. 사람들이 왜 꺼려하는지도 생각해 보았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수술은 매우 위험하다는 고정관념에서 오는 것 같다. 하지만 골수 이식은 수술측에도 안든다고 한다. 아주 간단하고 전신마취이기 때문에 고통도 없다고 한다. 또 한동안 헌혈하고 나서 AIDS다 뭐다 해서 주사와 관련된 것을 꺼리기 시작한 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들은 기증자나 수혜자에게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니면 조금의 용기만 가지면 자신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내가 애써 기증했는데 수혜자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생각도 든다. 하지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증자와 수혜자 사이에서 골수 은행이 간접적으로 매개역할을 해준다. 서로의 인적 사항은 비밀로 해준다. 사람이 살아 가면서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니겠는가 싶다. ‘수혜자가 나의 주위 사람이라면’ 이란 생각을 해보자. ‘기증하는 사람은 분명 천사일 꺼야’ 하는 생각이 들것이다. 나 또한 내 친구가 그렇게 대견해 보인 적이 없었다. 20대 또는 30대에 들어서 아니면 50나이에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가슴이 뿌듯하다면 한번쯤 해볼만한 것이 아닌가 싶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골수 기증을 계속할 것입니다.

편집부

네살배기 여아의 꺼져가는 생명을 구해 훈훈한 화제가 되었던 공무원 진정승씨와의 일문일답입니다.

R : 골수공여를 하게 된 계기는?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는 곳에서 골수 공여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자원했다.

R : 골수공여 당시 직업은?

-공무원으로 구로구청 하수과에 근무중이었다.

R : 수술 후 마취에서 깨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가족이 먼저 생각 났고, 그 다음 골수를 제공받게 되는 얼굴 모르는 아기가 떠올랐다.

R : 기증후 느낀 점이 있다면?

-내 몸에서 무언가를 남에게 줄수 있다는 것이 말할 수 없이 기뻤다.

R : 공여 후 직장 생활에 영향은?

-타인들의 걱정과는 달리 전혀 휴유증이 없었다.

R : 만약에 자녀들이 골수공여를 원한다면?

-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R : 주위의 반대로 골수기증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골수공여는 장기일부를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생성되는 골수의 일부를 기증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6년 동안에 32차례나 헌혈할 정도로 아주 작은일부터 남을 돕겠다는 진정승씨, 백혈병 환자들에게 희망과 함께 강한 투병의지를 북돋아 주었고 우리 모두에게는 이웃사랑의 실천방법을 일깨워 주었다.

골수기증운동의 방해군(?)

글 이종근 과장(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

지난 '94년부터 시작된 골수기증자원자 모집이 올 10월말로 1만 7천 명을 넘어섰으며 골수이식도 22건이 이루어졌다.

골수기증자원자 중 군부대를 통해서는 7천 6백 95명이 등록함으로써 45%의 모집 비율을 점하고 있으며, 골수기증자 22명 중 등록당시 군인이었던 기증자는 11명으로써 50%를 점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골수기증운동에 대한 군의 공헌은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한 적십자사가 군인들 위주로 골수기증운동을 전개할 수 밖에 없었던 시기는 골수사업 초창기이며, 이 당시는 일반 국민들이 골수기증에 대한 중요성을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던 때이기도 하다.

어쩌면 적십자사로서는 오랜 동안 헌혈운동의 좋은 협조자였던 근부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초창기 골수기증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희생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건강하고 젊은 군인들은 골수기증자원자로서 가장 좋은 대상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군부대에서 골수기증 등록을 받을 때는 군인들이 헌혈과 혼동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혈액원에서 헌혈을 받는 날은 일부러 피해 다른 날짜에 방문했다.

군부대를 방문하면 먼저 골수기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비디오 상영과 전문강사의 강의를 통해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 후 군인 스스로 깊이 생각하여 여러 사항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제공한 뒤에 등록을 받았다. 물론 이렇게 하기까지

는 그 동안 헌혈운동을 이해하고 협력해준 군 관계자들의 적십자운동에 대한 깊은 신뢰가 밑받침이 되었던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적십자사가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여 골수기증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충분한 전달없이 군부대 중심으로 모집했기 때문에 골수이식 실적이 저조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니 사업 담당자로서는 듣기에 참으로 민망한 말이다. 이는 또한 좋은 의도로 골수기증운동에 동참한 우리 군인 모두에게 큰 모욕이 아닐 수 없으며, 나아가 백혈병과 악성빈혈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는 새 생명의 기회마저 빼앗는 일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일부의 오해에서 비롯된 편견이 골수기증운동의 앞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선 많은 걱정이 앞선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골수기증 운동에 군인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가계각층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올해부터는 전국 적십자혈액원과 헌혈의 집에서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개별 면담을 통해 다회 헌혈자 중심으로 등록을 받고 있다. 다회헌혈자는 봉사정신이 투철하면서도 건강한 사람이기에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생명을 살리는 이레 기꺼이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우선 순위를 둔 것이다.

또 단체등록의 경우는 신학교와 교회 등 신앙심이 바탕이 되어 사회봉사에 앞장설 수 있는 종교단체 위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 등을 통해 심신이 건강한 젊은이들의 동참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골수기증운동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온 범국민적 참여와 지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많은 국민의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 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대한적십자사는 홍보활동의 강화방안으로 혈액원과 헌혈의 집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 골수기증 운동에 대한 교육을 기회 있을 때마다 실시하여 일선에서 직접 골수기증 희망자를 등록 받는 이들이 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방송과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 국민 홍보활동에도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골수공여에 따르는 합병증

글 박선양(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중증 재생불량성빈혈과 만성골수구성백혈병은 동종골수이식으로 완치될 수 있다. 급성골수구성백혈병과 급성림프구성백혈병도 강력한 화학요법을 시행하면 골수이식 못지않은 치료효과가 있으나, 재발된 환자와 일부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동종골수이식의 치료성적이 월등히 우수하다.

이와 같이 동종골수이식은 많은 악성 혈액질환 환자에서 유일한 완치 수단이지만 보통은 형제 자매간에 인백혈구항원이 일치하는 골수골여자로 부터 만 시술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많은 환자들이 동종골수이식을 필요로 하면서도 골수공여자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인백혈구항원이 같은 타인으로부터의 골수이식이 가능해졌으며, 국내에서도 다른 선진국에서와 같이 한국골수은행이 설립되어 골수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잘못 알려진 골수이식에 관한 보도 때문에 소수이기는 하나 골수공여를 꺼리는 공여자들이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 골수공여는 골반뼈에서 골수를 채취할 때 통증이 수반되지만 이는 마취로 해소 할 수 있으며, 2~3일이면 퇴원이 가능하다. 외국에서는 골수채취 당일 또는 다음날 퇴원하는 공여자도 많다. 마취에 따르는 문제는 최근의 발전된 의학기술로 극소화되었으며, 척추마취를 하면 더욱 안전하다. 골수채취 후 디스크(척추간판탈출증)가 생겼다는 보도는 근거도 없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난 일이 없다.

골수는 혈액과 같이 채취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고, 수혈에 따른 감염전파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 왔다. 그러나, 지금은 자가수혈을 이용하여 수혈이나 감염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었다. 자가수혈이란 일정기간 후에 수술이 예정된 환자에서 1~2개월전부터 1~2회에 걸쳐 자신의 혈액을 헌혈하는 것 처럼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채취시 수혈하는 것이다. 자가수혈은 혈액채취와 수혈에 따른 문제가 전혀 없으며 아주 안전하다.

골수 공여에 이밖의 합병증은 거의 없다. 비혈연간 골수이식을 위한 18~55세의 골수공여자에서 합병증에 관한 통계가 세계적으로 가장 골수이식을 많이 시행하는 미국의 Fred Hutchinson 병원에서 발표된 바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골수공여에 따른 합병증은 거의 대부분이 경미한 사항들이다. 즉, 골수채취 후 혈압이 일시적으로 약간 감소하거나 기운이 없는 것을 느껴 1일 이상 입원한 환자들이 8%, 출혈이 있거나 수혈을 요하였던 환자가 7%, 통증이 심하였던 환자가 8%, 일시적인 열이 있었던 환자가 4% 등이었고, 중한 발병이 있었던 환자는 0.1%에 불과하였으며 이 환자도 치료로 회복되었다.

더구나, 지금은 수혈이나 혈압문제는 자가수혈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비록 며칠간 통증은 있을 수 있으나, 이 만한 고통을 인내함으로써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망설일 필요가 있을까? 최근에는 골수채취 대신 말초혈액에서 혈소판 헌혈 때와 똑 같은 방법으로 조혈모세포를 채취하여 이식하는 방법도 개발되었다. 이 방법은 공여자에게 통증이나 마취에 따르는 문제가 아무 것도 없다.

기증자 아닌 기증자

글 임승욱 (명지대 시각디자인 강사)

백혈병이란 혈액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이고 일단 걸리면 완치가 어려운 불치병이라는 것 이외에는 솔직히 아는바 없다.

몇 달전 우연히 '한국골수은행협회' 의 작은 일을 도와주다가 백혈병도 골수이식에 의해서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겨우 알았을 뿐이다. 그래도 역시 많은 부분, 아직 백혈병에 대해서는 '무섭다' '두렵다' 라는 것 이외에는 아는 것이 없고 솔직히 생각하기 싫다. 생각하기 싫은 이유는 앞으로 나 또한 내 가족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무엇보다도 먼저 앞서기 때문일 것이다. 그 두려움이란 '죽음' 이라는 극단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 야기되는 수많은 아픔 또는 정신적 고통 때문일 것이다.

누구나 가족 또는 친척 혹은 친구 그리고 가까운 이웃이 백혈병으로 고통을 받아가는 광경을 목격했을 줄로 안다. 그만큼 우리주위에 많다는 것이다.

내 주위 또한 가까운 친척중에 백혈병이란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난 예도 있었다. 특히 기억하는 친구중에 이 불치병에 의해서 뼈아픈 고통을 받다가 간 친구가 한명 있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 솔직히 중학교 졸업앨범에서 그 친구의 사진과 이름을 찾으면 바로 알아낼 수 있겠지만 굳이 상기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중학교 3학년으로 막 반 배정을 받고 새로운 교실에 모여들 때였다. 모두들 새로운 분위기에 가슴 설레어 있었고, 과연 어떤 친구들이 이 반에 몰려들까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어느순간 눈에 띈 한 학생이 들어왔다. 눈에 익지 않은 그 친구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는데 아마도 머리카락이 없었던 모양이다. 그 친구의 외모가 어떻든간에 난 그 친구 천인상이 일단 무서웠었던 것 같다. 머리카락이 없어서였는지 당시 순진했던 나는 그 친구를 불량배와 같은 이미지로 생각했던 것 같다. 아무튼 모두들 힐끔힐끔 그 친구를 주시했고 나 또한 그 친구를 계속 옆눈질했다. 어느새 교실에는 전 인원들이 모여들었고 새로운 담임선생님은 자리를 지정해 주었다. 아이러닉하게도 그 친구는 바로 내 뒷자리에 배정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거부감이 있었고 무척 싫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에 대한 내용을 하나 둘씩 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섭게만 느껴졌던 그 친구는 꽤 조용한 친구였고,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같다. 자주 결석을 했는데 그때 담임선생님은 그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며칠 치료를 받으러 간다는 말 이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그때부터 난 그 친구가 무슨 병에 걸려 있다는 느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병이 백혈병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아무튼 당시 난 그 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나 나름데로는 꽤 친했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덧 그 친구의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고 병이 나아가는 듯한 인상도 주었다. 그래도 3학년이 끝나갈 무렵까지 그다지 머리가 많이 자라지는 않았던 것 같은 기억이 난다. 그 친구가 내게 말한 것 중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 "나 머리카락 길었을 때 빨간머리였다. 여자 애들이 많이 따랐는데…"라는 내용이었다. 난 당시 처음으로 내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신경을 쓰기 시작한 시기였고, 다른 친구들 모두 그랬다. 아마도 한창 사춘기 시정이었던 당시 그 친구가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무의식중에 우리들에게 표현했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당시 난 적지않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그 친구는 언제나 밝아보였다. 중3이 끝나갈 무렵 모두들 고입연합고사 때문에 분주했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또 결석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고등학교에 올라왔고 그 친구와의 접촉은 없어졌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분위기에 접어들 때였다. 학교에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내 머리를 치고 깔깔거리며 저만치 도망을 간다. 누군가

하고 보았더니 그 친구였다. 그 상황에 난 또한번 큰 충격을 받아야만 했다. 오랜만에 본 그 친구의 머리는 다시 빠져있었고 입술의 껍질이 다 벗겨져 있었으며, 푸른색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얼굴 또한 많이 창백해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난끼 어린 표정으로 환히 웃고 있었다.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다. 결국 그 얼굴이 마지막이 되었던 것이다.

그후 2,3주 후였던 것 같다. 친구들끼리 쑥덕이기 시작했다. 그 친구가 며칠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한달도 되지 않을 때였다. 지금도 난 당시 그 친구를 존경한다. 그 친구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절망적이지만 조그마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랬었기 때문에 그 고통속에서도 계속해서 학교에 다녔었던 것이 아닐까? 여기서 그 친구가 겪은 고통이란 단순히 병에 의한 아픔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한창 사춘기 시정의 정신적 고통도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난 그친구가 앓았던 병이 백혈병이었다는 것은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후에야 알았다. 그리고 또한 그 백혈병이 무서운 병이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감성적인 당시로서는 그 친구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 후로도 길을 가다가 가끔 머리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노는 아이들을 본다. 그러면 그친구를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아이의 아픔도 생각해 본다. 역시 백혈병은 무서운 병이다. 다시 말하지만 생각하기 싫은 병이다. 백혈병 뿐만이 아니다. 불치병에 걸려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심정은 절망적일 수 밖에 없다.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골수이식이란, 백혈병 환자들을 구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아무튼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이미 세상을 뜬 그 친구에게 떳떳할 수 없을 것이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을 보고

글 김 명선 (적십자혈액수혈연구원)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이라는 글이 적혀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받았을 때, 골수기증사업을 하는 대한적십자사에 근무하고 임상병리사 자격증까지 있는 나로서는 그다지 특별한 느낌을 받지 못했다. 그저 여느 기관처럼 단순한 홍보물이려니 하는 생각으로 재생단추를 눌렀을 때, 나는 골수이식에 대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소아병원에서 근무할 때에 항암치료를 받아서 빡빡 깍여진 머리에 한시라도 추울까 걱정하는 어머니의 손길로 짜여진 털모자를 쓴 어린아이들을 볼때면 절로 눈시울을 적시곤 했는데, 우리는 흔히 이 병을 백혈병이라고 통칭하곤 한다. 우리 주의에는 이런 백혈병 환자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환자들은 하루하루를 불안한 마음으로 보내며 도움의 손길을 원한다. 그 손길의 하나가 되는 길이 바로 골수기증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

로 자신이 아픈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남에게 골수이식을 받아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도 자신의 가족이 다른 이를 위해 골수기증자원자로 등록한다고 하면 걱정부터 하게 된다. 이러한 이기주의적이 마음을 버린다면 한 생명에게 빛을 주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니리라.

대부분 사람들의 헌혈에 대한 인식은 보편적이고 광범위해서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은 헌혈을 통해 발휘된다. 하지만 헌혈 못지 않게 골수기증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되면 그 쪽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을까 싶다. 만약, 골수기증에 대해 좀 더 쉽게 알고자 하고, 골수기증자원자가 될 것이가를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이 비디오를 보도록 권하고 싶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아무러한 사심없이 골수기증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되새기며 나도 골수기증사업에 동참할까 한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글 KBS 공채 9기 이 현숙

올해의 첫눈은 유난히 탐스럽게 내렸습니다. 문득 우리의 탄생 또한 그러했으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궂은 날씨 속에 내린 함박눈처럼 삶의 한 부분에서는 탄생이 있고 죽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흰 눈이 발하는 그 순결한 빛처럼 또 그 눈이 녹아 세상에 한 점 물방울로 맺혔다 땅을 적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이 도전의 연속이라면 어느 날 문득 닥친 병마와의 싸움도 우리에게는 도전이며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몰론 힘겹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같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으며 고통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에 저는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이 영화를 찍으며 저는 골수에 대한 무지함을 깨달았으며 이제는 백혈병도 완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 수 있는 일에 제 자신이 참여하게 되어 몹시 큰 보람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주인공의 아픔이 이 병의 사실성에 얼마나 접근했을지 내심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또 이 한편의 영화가 병마에 시달리는 이들의 그 커다란 고통을 모두 대신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그들이 꼭 쥐고 있을 희망과 용기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 번 저에게 깨닫게 해 준 이 영화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병마에 시달리는 이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어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홍보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이현오(P&P 프로덕션 제작2팀장/연출)

처음 홍보드라마 제작을 하게 되었을 때 막연히 '병원에 자주 갈 일이 생겼군'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제작 전에는 백혈병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고 대학때 이 병으로 목숨을 잃은 학생을 보았기에 이 병에 걸리면 거의 죽는다고 생각 했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제작을 위해 병원과 수술현장을 누비며 전문의들을 만나고 이 병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면서 나 뿐만 아니라 스텝진 모두가 이 백혈병에 대해 새로운 인식들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는 백혈병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사람들에게 알리는 홍보적 기능과 기증을 통해 이뤄지는 '아름다운 감동' 을 동시에 전해야 했기에 계몽과 감동 이 두가지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큰 감동은 백마디의 설명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최대한 감동을 전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설정되었고 드디어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촬영이 병원, 아파트 등에서 올로케로 이뤄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촉박한 촬영시간에 맞추기 위해 전 스텝과 연기자들은 긴장 상태였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연기자들이 밤샘촬영으로 피곤한 나머지 연거푸 NG를 내 당초 예정된 시간이 지연되어 자칫, 촬영을 마치지 못할 위기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고비들을 넘기고 촬영현장에서 3일밤을 뜬눈으로 보낸 스텝들은 마지막 장면을 찍을 때쯤 에는 거의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는 이 드라마의 좋은 목적이 제작을 하는데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품이 나온 지금 '좀 더…'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모든 스텝과 연기자 그리고 이런 뜻 깊은 일을 하시는 한국골수은행협회에 감사를 드립니다.